

74호, 2008.4

사람 / "법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 이재정 변호사 / 김현진, 이유빈

시론 / 제 발등 찍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 유영재

특집-평협운동 / 한(조선) 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 민중의 입장

특집-평협운동 /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특집-허세욱열사 / 허세욱 열사 추모 1주기를 맞는 우리의 과제 / 김종일

특집-허세욱열사 / 허세욱 열사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 한독운수 노동조합 / 김슬기

특집-허세욱열사 / 허세욱 열사의 삶을 좇아서 / 황윤미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평통사를 통해 작은 희열을 느낍니다 / 신현범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노뚝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 남미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발로 뛰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자! / 손종욱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개성방문기 - 6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고향 / 한철희

현장 / 주한미군 송유관 기름유출 - 우리의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 장도정

현안 /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위협 주범 / 고영대(연구위원)

| 여는 시 |

꽃 걸 음

민족시인 이 기 형

숨통이 막혀
19세기 잠꼬대인가
두 차례 뽑기에서
연거푸 뒷걸음쳤다
못난 가르침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
事大의 검은 아가리를 향해
돌진한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 썸에서 부딪쳐 부서질 것인가
절망,
다음엔,
희망이,
동서남북을 쳐다본다
초봄 매화 목련이 피었구나
천재 선배가 맺어준
좋은 날 아름다운 향수는 유효해
멀리서,
가까이서,
바로 이웃에서,
아무리 알리질 않아도
절정의 태양은 마냥 솟아
놀랍구나 사철 갖가지 꽃을 피워
앞걸음치라 알려주며
사랑의 꽃길을 밝혀준다

| 사람 |

“법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재정 변호사 - 그녀와의 유쾌한 수다

글 이유빈/사진 김현진

서초동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이재정 변호사. 단정한 검은색 치마 정장에 겹으로 보이는 수줍은 눈 보조개는 우아함과 고상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살짝 다가가보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가득찬 청춘의 열기와 집회에 나가는 것이 마냥 신난다는 순수함은 30대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이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네이트온 친구등록으로 마음껏 물어보라는 발랄함을 가진 그녀와의 수다를 살짝 엿들어 보자.

#소감 한 말씀? - 평협 운동 제안자이자 선포식에서 멋진 사회자로 데뷔(?)하셨는데...
사실 나는 통일에 대한 지식이 짧다. 얼마전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맡았던 이시우 작가 재판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접하고 배웠다. 그리고 미군문제를 떠나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엔사, 정전협정 이런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아닌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그런 고민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평협운동의 제안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회자 제안이 온 거다. 그냥 토론회 분위기인줄 알았는데 콘티를 딱 보니까 한번도 해본 적 없는 구호 선창하는 게 있더라. 이거 야단났다고 싶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휴~^^;;

#천기누설!? - 미모에다가 지성까지 겸비한 비결 좀 알려주길...
그런 민망한 말씀을... 비결이라고 말할 만 한건 없다. 사실 내가 공부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변호사란 직업은 아무나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나 뒷바라지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나 역시 내 인생을 걸만큼 고시공부가 전부는 아니었다.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이나 좋아하는 노래패 활동 등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고시공부 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나는 고시공부에 진 빚이 없다.

#궁금거리 - 참여연대에 노래패 활동까지?

사법고시 2차 시험 발표를 기다릴 때 참여연대에서 상근활동을 한 적이 있다. 결국 시험에 떨어지고 고시공부를 접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장경옥 변호사를 보고서 “조금 더 노력하면 면허증 하나 더 생기는데...”하는 마음으로 고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다. 노래패 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다. ‘참 좋다’라는 참여연대 노래패이다. 대학 시절에도 단대 노래패 활동을 했었다. 작년에 사무실 내고나서 활동에 좀 소홀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래패 공연은 다닌다. 노래는 잘 못한다. 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은 너무 좋다.

#과거지사 - 그렇다면 학생운동도 했었는가?

사실 운동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그 때는 풍물, 마당극단 활동을 열심히 했다. 시대도 엄혹하고 교복차림에 대학입학의 부담까지 있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대학에 와서는 막상 운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힘 별로 안 드는 노래패 활동만 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는 운동에 대해 소홀해진 것 같다. 하지만 이후 사법연수원 시절 학회 활동을 하며 다시 운동의 길에 들어섰다. 연수원 학회는 소위 대학 때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만든 여러 모임으로 학생회랑 비슷한 것이다. 거기서 인권법학회 활동을 했고, 현재는 민변에서 국제인권과 언론위원회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자랑거리 -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직접 디자인 하신 것인지?

솔직히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 개인 사무실 낸지 아직 1년이 안됐다. 개인사무실 말고 여럿이 모여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낼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찻집 같은 사무실을 만들고 싶었다. 그냥 사람들이 발벗고 편히 들어올 수 있는 카페 분위기. 그런 마음에 사무실 이름도 아름다울 ‘가佳’에 별를 ‘율律’을 써서 <가율>이라고 지었다. 명함에도 beautiful law라고 적었다. 원래 계획은 법원 앞에 있는 건물 1층을 얻어서 카페같은 사무실을 여는 것이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편히 앉아서 물 한잔 얻어먹고 쉬어갈수 있는 테라스도 만들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했다. 또 한 가지 욕심은 회의실이다. 사랑방처럼 만들고 싶다. 회의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평통사분들 자주 놀러와도 된다. 대환영이다. 모임방 대여도 된다.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어요. 호호호...^^”

#은밀한 질문(?) - 연애편, 결혼관은?

결혼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일단은 내가 많이 바쁘다. 우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알아서 포기하고 정리하고 그런 게 두려워서 나는 내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나를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별로 조금해 하지 않는다.

#푸닥거리 - 하고 싶은 말들...

변호사가 많아져야 한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변호사면서 은행일 하고, 항상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급할 때는 운전할 수도 있고 운전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듯이 변호사도 하나의 자격증처럼 됐으면 한다. 아직은 내 나이도 그렇고 활동에 대한 욕심이 많다. 몇몇 단체에 후원하고 있는데 가입하고 나서 소식지를 통해 배우는 게 참 많다.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있어서도 나는 제안자라기보다는 새내기이다. 많이 배워보고 싶고, 배우면 그만큼 힘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 장경옥 선배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혼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민변이든 시민단체든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인터뷰 중간중간 ‘평화누리 통일누리’ 회지를 조심스레 한장한장 넘겨보는 그녀. 앞으로 공부 많이 시켜달라는 말과 함께 회원가입서에 소중한 이름 석자를 적어주었다. “이재정 회원님~ 앞으로 평통사와 함께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빠져 봅시다요~ ^^*”

‘고삐 풀린 망아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남북관계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이는 통일부 폐지 방침과 북한 붕괴론자인 남주홍이란 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던 데서 이미 예고된 일이다.

이명박 진영은 후보시절부터 북을 개혁 개방과 시혜 대상으로 여기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북을 무시하고 모욕해왔다. 그들은 ‘한미동맹 복원’에 올인하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반복 대결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달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느니, ‘남북관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다’느니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 제안이나 대북 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극단적인 미국 추종적 발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뱉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도 앞 다퉈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핵문제 해결 전에는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없다면서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은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 핵 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을 협박했다.

북, “남조선 당국이 반복대결로 얻을 것은 과멸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에 대해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자 이를 주시하던 북도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다.

먼저, 김하중 통일장관의 북핵 경협 연계론을 이유로 지난 달 27일 새벽,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11명 전원을 추방했다.

29일에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선전 포고와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발언에 대한 사과와 취소를 요구했다. 북은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일에는 노동신문 논평원 명의로 발표된 “남조선 당국이 반복대결로 얻을 것은 과멸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면서 ‘비핵 개방 3000’, ‘개방·인권’, ‘북핵 포기 우선론’, ‘한미군사동맹 강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사태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이제까지 드러낸 대북 적대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안팎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거나 항의가 지나치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행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성격을 드러내 보자.

김태영 합참의장,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이 알려지면서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의 규탄과 북의 항의 전화통지문 발송 등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 왔다.

이에 대해 합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국방부와 합참은 2일, ‘북측 진통문에 대한 답신 진통문’을 통해 김태영 의장의 발언을 북측이 “임의대로 해석”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측의 “자의적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제272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태영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속기록 11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송 의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강조 필자)”이냐고 물었고, 김태영 의장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강조 필자)”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사시에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는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합참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강조 필자)”이라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예”라고 분명히 동의했다.

김 의장 발언은 ‘선제공격’ 분명

김태영 의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정밀 타격한다.’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을 볼 때, 김 의장의 발언은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미국의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을 위협

이 있거나 그런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상대방의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전략은 지구상에서 오직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데 김 의장이 바로 이런 미국의 전략에 동의한 것이다. 사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서 동의한 ‘핵 억지 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도 그 대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미국이다.

이어진 답변에서 김 의장은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미사일방어(MD) 구상 중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여 상대의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적극적 방어개념’과 맞닿는다. 이 또한 대북 선제타격 논리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협이나 징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일까?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의 정보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빌미로 미국이 선제공격했던 이라크에서 그 어떤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던 선례를 보라.

국방부는 물론 일부 언론까지 진실 왜곡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장의 발언은 결국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발언의 파장을 줄이려는 듯 국방부와 합참은 진실을 덮으려 한다. 일부 언론까지도 김 의장이 ‘핵 보유 상황’을 가정하여 발언한 것을 ‘핵 공격 상황’으로 가정 상황을 부풀려 파장을 줄이려 하는가 하면, 선제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이라는 표현이나 “징후가 있을 때는 정밀타격”이라는 문구는 아예 뺀 채 보도했다. 진보 언론이라는 한겨레조차 지난 1일자 사설을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전쟁 때의 ‘일반적 군사조치’를 언급한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선제타격을 말한 건 아니”라는 김 의장의 거짓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와 합참, 일부 언론의 왜곡으로 김 의장이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했다는 평통사 등 평화단체와 북한의 비판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과장되고 비합리적 발언으로 치부되고, 김 의장의 발언은 그저 신중하지 못한 발언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김 의장의 선제공격 주장은 위헌·불법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attack occurs)’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다시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필요성(necessity)’과 전쟁의 정도와 수단은 침략국을 격퇴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무력공격의 징후를 빌미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주장하는 선제공격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특히, 이는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최초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아주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위협하고 정세 역행 하는 선제공격 발언

만약 김태영 합참의장의 주장대로 남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태영 의장의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평화적, 반민족적 망언이다.

특히,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이 열리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호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가 합참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결자해지!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할 일

북이 사과와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북이 임의대로 해석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의 “자의적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선제공격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1990년부터 남측이 제안해왔던 사안을 북과 사전협의도 없이 불쑥 내놓은 것이다. 이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의 급속한 진전으로 외톨이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서 내놓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헤어진 여자 친구와 커플요금제 하자는 꼴”이라는 한 네티즌의 비아냥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잘 묘사하는 것 같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핵 연계론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김태영 의장의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방적이고 대결적인 대북 정책의 업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결자해지!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남북관계를 위기 국면으로 내 몰다가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 캠페인 |

미사일 맞추기 게임은 그만두세요!

‘스타워즈 - 별들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가? 영화제목인줄만 알았던 그 ‘별들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일본-한국 공동합작으로 추진되는 이 작품의 제목은 <MD>이다.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제)는 쉽게 말해서 공중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쫄그런데... 알고보니 무늬만 한국형, 속살은 미국형?

한국형 MD에 필요한 핵심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 1)조기경보 레이더 ? 조기경보 지휘체계는 미국에게 의존해야 함.
- 2)지휘통제체계 C4I ? 핵심 조종권한은 미국에게 있음.
- 3)요격 미사일 ? 미국산 무기인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강요

쫄게다가... 무늬만 한국형인 MD 구축 총 비용 8조~10조 예상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MD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MD 들여와서 전쟁하는데 동참하지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부담 덜어주면 참 좋겠다!!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 민중의 입장

전쟁, 혁명, 냉전 등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과 인권-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숭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곳 한반도에도 6자회담에서 이룩한 2·13합의를 기점으로 세계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구체적 흐름이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한국(조선)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민중(인민)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조선)전쟁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합의하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 총회 또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28일, 결의안 711호를 통해 이 협정 4조 60항의 합의사항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두 달 내인 10월 27일 이전까지 미합중국이 주선해 개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회의가 1954년 열렸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무려 54년 동안 이 막중한 책무가 지체되어 왔습니다.

전쟁 부재를 의미하는 평화는 인간의 집단적 생명권 박탈 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역사적이고 통사회적인 절대 규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조선)반도에서는 정전협정 4조 60항의 미 이행으로 50여 년 전의 한국(조선)전쟁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한(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의 군사 대치상태에 놓여 있고, 군비경쟁과 전쟁연습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쟁위기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북과 남) 민중(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언제나 가슴 졸이는 삶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민중들은 머지않아 전쟁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선결조치로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 합의사항인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북핵 불능화 및 신고 등 각국의 의무사항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활짝 열 것을 촉구합니다.

평화협정과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조선)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에서 평화터전을 일구는데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한(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냉전의 결과물인 민족분단과 민족적대라는 비극적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 곧 통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번 기회에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가 기필코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5년 동안 미뤄진 평화협정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운동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당사국들이 평화구현의 수사를 넘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 곧 전쟁배제 구조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에서 평화체제의 틀과 제도를 세우고, 이를 평화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 이행해야 합니다. 곧, 핵심적인 평화 저해 요소인 외국군 주둔, 외국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군사동맹,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 핵우산 제공, 외세주도의 군비경쟁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협정은 전쟁의 원천을 없애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상호 연동하여 해결하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협정을 위한 각 당사국의 핵심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첫째, 한(조선)반도 남쪽에서는 주한미군과 그 군사기지가 철수 및 철거되어야 하며, 북쪽에서는 외국군이나 그 기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각기 맺고 있는 한미군사동맹과 조중군사동맹은 철폐되고, 남쪽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외국군주둔과 외국과의 군사동맹은 구조적 차원에서나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평화위협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이든 북이든 외국군 철군과 군사동맹 철폐는 온전한 평화 실현의 선결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군 지지여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서, 2007년 9월 22일 <중앙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 고위층 또한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곧바로 철수시키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약해 온 점을 볼 때,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전쟁의 소지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무기 폐기와 병행하여 미국의 핵위협 및 핵우산이 제거되어야 하고, 한(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체제는 군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군 철수와 군사동맹 철폐가 외적인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경쟁 중단,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걸맞는 군축 등은 내적 전쟁불씨를 해소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넷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분단의 극복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과 통일을 비롯한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 불간섭 원칙을 공약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주적인 민족사의 행보가 보장되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외세에 의한 평화교란의 소지를 아예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핵심사항이 갖춰진 평화협정이야말로 한(조선)반도 평화정착을 담보하는 관건입니다. 우리는 네 당사국들이 2·13합의에서 이뤄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언약에 따라 이를 완결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결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한반도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 역사의 장엄한 물결이 동북아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우리 한국 민중들은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일동
2008년 3월 24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평화를 사랑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2.13합의, 10.3합의를 경과하며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누구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 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를 이루고 자주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온 겨레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갈망해 온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래 천형처럼 들쭉거린 전쟁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 소모적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또, 남북 사이의 재래식 군축을 통해 상호간에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군 철수, 북핵 폐기 및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남북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자주적인 나라, 평화로운 삶,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방위비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박탈, 미군범죄와 기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국민으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전쟁의 위험과 군비 경쟁의 족쇄를 풀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비를 현재의 1/3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 민족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화협정 체결이 오래도록 지체되거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두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총체적 대미 예측과 전쟁의 위험, 남북간 대결과 적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반테러전쟁이라는 허울 밑에 중국과 러시아, 북, 그리고 여타의 반미세력들을 포위, 봉쇄, 유린하기 위해 남측 정부에게도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NATO GP),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평화유지군(PKO) 과 병 상시화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다면 대미 예측성은 더욱 심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은 구조화되며, 남북 대결은 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태 전개를 막고, 주한미군 철수와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 내는 것은, 자주와 평화통일을 갈망해 온 우리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현대사의 중대한 고비마다 민중적 해안과 용기있는 결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온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북 방어를 명분삼아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할 근거와 명분이 없어집니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전쟁의 불씨인 외국군대를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50년이 넘게 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이북도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도 주둔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겨레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보면 이 기회가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안보불안, 경제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없이 남의 군사력만으로도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도 남는다는 한미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치며 남북이 단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남

북관계의 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북의 남침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이 미군 철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도 명분과 수단, 현실적 가능성과 역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면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경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며, 나아가 분단을 끝장낼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중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정전협정 55주년이 되는 7월 27일(일)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외칩시다.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평화군축 실현! 이를 통해 한국민의 자주·평화·통일 의지를 온 세계에 과시하고 한반도 평화포럼 당사국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0여년 만에 열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대미 예측과 전쟁 위험, 동족간의 적대와 소모의 쓰라린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 나갑시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일동
2008년 3월 24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명단

가재형 강내희 강대훈 강동수 강민욱 강상원 강석주 강성관 강승철 강원규 강정구 강제숙
강주혜 강희남 고경수 고대언 고상주 고영남 고영대 고용수 고윤철 고호영 고흥문 곽정숙
권낙기 권병길 권병성 권선혜 권오광 권오대 권오승 권오창 권오현 권창식 권 철 권혁문
권혁범 금기송 기원주 김광옥 김 현 김강연 김건우 김경자 김경희 김광열 김규철 김금옥
김기택 김남훈 김대송 김도윤 김동우 김동진 김동한 김동희 김두원 김래현 김맹규 김명복
김명운 김미영 김민욱 김민웅 김백수 김병권 김병철 김병철 김보희 김상곤 김석제 김석주
김선분 김성근 김성렬 김성옥 김성윤 김성태 김성훈 김수남 김수철 김숙희 김숙희 김순경
김슬기 김승균 김애영 김연태 김영관 김영애 김영오 김영옥 김영제 김영진 김영호 김옥연
김용섭 김용성 김용우 김원식 김유순 김은경 김은아 김은옥 김은주 김을수 김을현 김익환
김인수 김일권 김일희 김재봉 김재현 김정대 김정하 김정훈 김종서 김종수 김종일 김종현
김주숙 김주철 김주홍 김준기 김중한 김지수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태 김지태 김지희
김지희 김창근 김창호 김창환 김창희 김채석 김택균 김한덕 김한성 김현택 김현정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형근 김호영 김화수 김홍수 김희용 나기주 나영훈 나창순 남경래 남궁석
남궁현 남명수 남미영 노수희 노순택 노중선 노철성 도강호 도지호 라귀인 류금수 명은실
문경식 문군호 문규현 문대골 문양로 문한나 문홍주 민영완 박경서 박금석 박기백 박기학
박래균 박명배 박무식 박 민 박민웅 박병옥 박봉자 박상문 박상옥 박석률 박석종 박석진
박숙경 박순경 박순길 박순희 박승흡 박영옥 박영천 박용일 박용재 박용희 박유순 박은규
박일규 박재형 박정곤 박정숙 박정자 박조수 박종문 박종삼 박종양 박종익 박종익 박종일
박종주 박종찬 박준기 박중기 박태동 박홍식 박희진 방만식 방종운 배민혁 배성인 배성태
배용한 배종렬 배은심 백기완 백석근 백요순 백정남 백차현 백창석 백창옥 변연식 봉찬영
서경순 서경혜 서관모 서동빈 서동완 서상권 서상철 서상호 서영석 서영선 서영완 서일웅
서정대 서정보 서창호 서형식 서호성 석성만 설두복 성명은 손병희 손선재 손영태 손영활
손윤희 손종옥 송권수 송무호 송바울 송인겸 송재국 송정로 송화선 신동훈 신용관 신재훈
신정길 신종원 신종철 신창현 신필녀 신현범 신한섭 심문기 심자섭 안성례 안용국 안치환
안희만 안희숙 양미자 양요순 양윤순 양재석 양재혁 여영석 염성태 오기모 오기성 오기주
오낙영 오영미 오종렬 원용철 원응호 원학운 유동준 유민호 유병규 유병제 유봉희 유선근
유성훈 유승기 유영빈 유요열 유종대 유춘용 유호명 윤금순 윤 현 윤미향 윤민석 윤상렬
윤소라 윤영수 윤영일 윤영전 윤영훈 윤용기 윤원석 윤인중 윤종순 윤충노 윤택근 윤한택
윤화심 윤희숙 이강실 이 영 이강택 이건철 이경수 이경옥 이계연 이계환 이관복 이광득
이광석 이광원 이귀임 이규남 이규성 이규재 이남진 이덕순 이덕찬 이상진 이성근 이미영
이미영 이민규 이민형 이병식 이병일 이보영 이보영 이상규 이상춘 이석기 이석행 이성원
이성찬 이성훈 이세우 이수근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수호 이숙주 이승무 이승현 이승호
이승희 이시우 이양우 이영진 이영한 이용식 이은영 이은옥 이은직 이은직 이일영 이재영

이재정 이재창 이재호 이전략 이정오 이정임 이정현 이정후 이정훈 이정희 이제학 이제훈
 이종린 이종일 이종춘 이종필 이주은 이주희 이준걸 이준훈 이종구 이진권 이진실 이진철
 이찬배 이창근 이창한 이천재 이철수 이철우 이춘식 이태현 이태호 이태환 이태환 이한본
 이해진 이현옥 이현주 이형숙 이형우 이해련 이호민 이흥기 이흥석 인수범 임기란 임동원
 임방규 임보라 임성규 임수규 임숙영 임승계 임종철 임채경 임현순 장경옥 장관철 장남희
 장도정 장두석 장민혜 장성국 장성기 장시기 장인옥 장창원 장태주 장해영 장현권 전경옥
 전병덕 전병생 전병찬 전영남 전영선 전윤미 전창준 전창훈 정갑득 정광훈 정귀남 정기열
 정동근 정동익 정명락 정방직 정상덕 정상덕 정서진 정성희 정송호 정순녀 정순영 정순옥
 정순희 정승영 정신화 정영건 정영수 정영철 정용진 정용진 정우달 정일태 정재훈 정종득
 정진화 정창석 정태순 정해혁 정현식 정혜경 정혜열 정희억 제해식 조광수 조남순 조동문
 조민우 조부활 조성혜 조순덕 조승철 조승현 조신원 조원기 조정현 조정현 조한경 조현정
 조형래 조환구 주병덕 주병원 주병준 주봉희 주정숙 지금종 지안나 진영옥 진용수 진재환
 채규정 채한석 천영세 최경순 최난희 최노을 최명호 최문식 최문희 최병상 최병중 최상재
 최성훈 최영목 최옥주 최용우 최은덕 최장수 최재우 최재준 최종교 최종대 최종덕 최종틀
 최진연 최충목 최형곤 최형석 최희준 추영배 탁현배 피경원 피재현 하부영 하우영 한강희
 한기명 한도숙 한문덕 한상렬 한상준 한세옥 한연숙 한용문 한종현 한찬옥 한철희 허영구
 허영춘 허창옥 허학범 현동식 현지환 현호현 형복순 홍근수 홍기호 홍명옥 홍 변 홍성담
 홍성학 홍성훈 홍승권 홍영진 홍은숙 홍학기 홍희덕 황 완 황규금 황두완 황보윤식 황 선
 황순영 황재순 황현정

(가나다순)

| 특집① _ 평화협정 실현운동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어디까지 왔나?

- 4월 22일 현재(평통사) 추진위원 671명, 길잡이 815명 -

회원팀장 박석분

지난 3월 24일 615인의 추진 각계인사 이름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후 평통사 중앙과 지역은 오는 7월 27일까지 추진위원 1만 명과 길잡이 10만 명을 모아 내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실무 일꾼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오전 9시 30분에 일제히 동시에 체조와 구호, 조회시간을 갖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많게는 2천명 이상, 적게는 50명까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한몸같이 움직입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짝 엿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평협 카페(cafe.daum.net/peaceagreement)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❶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김일회 신부님은 매주 목요일 인천에 있는 성당을 돌며 '평화협정 실현 미사'를 보십니다.

❷ 부천 주정숙 대표는 4월 9일, 노점상연합회에서 활동하는 회원과 3시간에 걸친 ‘대장정 대화’ 끝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주 대표는 그 한 마디에 힘이 붙은 듯했다고 합니다.

❸ 대구 준비모임 백창욱 목사님은 부인, 회원 한 분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 길잡이 모집 활동을 펼쳤습니다. 비록 첫날은 10명의 길잡이를 모집하는데 그쳤지만, 개척자 정신으로 뛰고 있는 백목사님의 모습은 평통사의 희망, 바로 그것입니다.

❹ 4월 11일, 대전충남 평통사 장도정 사무국장의 이야기네요.

“방금 사무실에서 체조하고..어제는 홍성에 갔다 왔습니다. 1명의 추진위원 가입을 받았고...다시 대전으로 와서 1명의 추진위원 가입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유병규 운영위원의 활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❺ 중흥무진, 광주전남 평통사... 4월 3일, 전남대에서는 강정구 교수님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앞두고 강정구 교수님과 정동석 국장이 전남대 총학생회를 만나 평협 투쟁 관련 논의를 한 결과, 총학생회에서 추진위원 10명과 길잡이 150명을 결의해 주었습니다. 10일, 정동석 사무국장이 올린 카페 글을 볼까요. “새벽 2시 비록 잘 곳이 없어 피시방에 왔지만 조직 순례 첫 날 2명의 추진위원과 3명의 회원 가입의 성과가 피로를 이기게 해주네요....11,12일은 광주에서 업무 및 활동, 13일(일)은 무안지역 순례입니다.” 18일 나주, 25일 무안.... 정국장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 신재훈 서울평통사 회원은 3월 말부터 직장일을 마친 후 3-4시간씩 추진위원들을 위해 자봉을 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사무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동안 추진위원이 되어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린 일이었는데, 추진위원들께 길잡이 조직상황을 물어보고 어떤 도움을 드릴 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추진위원들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진위원님들의 분발과 활약을 기대합니다.

| 특집① _ 평화협정 실현운동 | 추진위원 광고 ①

이 달의 추진위원은

내과전문의로 이대 앞에서 ‘김지영내과’를 운영하고 계신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평협실현운동’ 홍보물을 보여드리며 길잡이 모집을 부탁드립니다. 흔쾌히 길잡이 선언비까지 함께 내주신 선생님. 홍보물은 다른 사람들 나눠주라며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지!” 하십니다. 북한에 ‘콩우유 보내기’ 운동본부장까지 맡고 계신 선생님께선 종이 한 장뿐만 아니라 일본일초도 아깝지 않게 살아야함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허세욱 열사 추모 1주기를 맞는 우리의 과제

사무처장 김종일

허세욱 열사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한미FTA 회담장 앞에서 분신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작년 4월 1일 그 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당시 제발 만우절의 해프닝이기를 얼마나 소원했었던가.

허세욱 열사에 대한 회상

허세욱 열사는 나에게 커다란 부채의식을 남겨주었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탱크에 깔려 죽은 후 항의시위가 의정부 미2사단 사령부 앞에서 본격화될 때 허세욱 열사를 처음 뵈었다. 허세욱 열사께서는 나에게 꿀차 한잔을 사주시면서 “위원장님, 제가 서울지역의 택시기사인데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에게 억울한 여중생의 죽음을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라며 물었다. 그 때 허세욱 열사에게 선전물을 드린 것이 첫 인연이었다. 이후 허세욱 열사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찾아와 선전물을 받아가셨다. 수개월에 걸쳐 대략 2천부 이상의 선전물을 택시 승객과 퇴근 후 열사의 자택 근처 봉천동 주민에게 배포하였다. 허세욱 열사는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를 온 몸으로 표현했던 분이였다.

2003년 여중생 투쟁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 허세욱 열사께서 한 달에 한번 꼴로 바쁜 일과를 쪼개서 접견을 와주셨다. “위원장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야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분을 구속한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저도 열심히 반미투쟁에 동참하겠습니다.” 허세욱 열사의 열정이 그 해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주었다. 허세욱 열사는 운동가의 기본인 동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이미 체화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허세욱 열사께서 2004년 초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우리는 반미자주투쟁의 한 길을 걷게 되었다.

2004년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 본격화 될 때 허세욱 열사는 쉬는 날 집회가 있을 때마다 평택으로 달려오셨다. 투쟁 현장에서의 허세욱 열사는 항상 앞장서고 늘 당당한 분이셨다. 그 당당함은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의 위세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2005년 5월 4일 ‘여명의 황새울’이란 작전명으로 황새울 벌판에 철조망이 쳐질 때 ‘미군기지 확장반대’ 황색 깃발을 들고 헬기를 잡겠다며 갈라진 논바닥을 질주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허세욱 열사는 분노의식과 실천투쟁의 괴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투쟁하는

민중의 표상'으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마음 속에 새겨졌다.

2006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함께 한미FTA를 통해서 자신들의 패권정책을 우리에게 강제할 때부터 허세욱 열사는 결단코 이를 저지해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진보진영의 투쟁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셨다. 그러한 결의와 안타까움이 열사를 결단하게 만들었으리라. 허세욱 열사의 고뇌에 찬 결단은 2007년 3월 말부터 시작된 서울시청, 광화문 앞에서의 1인 시위로 표출되었고, 마침내 4월 1일 한미FTA 회담장 앞 분신으로 귀결되었다. 열사께서 자신의 온 몸을 민족과 민중의 대의 앞에 아낌없이 바치고 산화해 가심으로 미국의 패권정책에 맞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몫임을 보여주셨다.

현 시기 우리의 과제

허세욱 열사의 삶에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은 매 시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예측과 굴종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왔다.

지금 미국은 북의 대북압박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북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부시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전상태가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당국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쟁과 분쟁의 주 당사자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지금의 정세는 우리에게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만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 자주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주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다. 평통사가 1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준비한 ‘사상 최초 주한미군 철수를 명기한 평화협정안’을 들고 각계각층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100만명 이상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기 폐기, 남북 평화군축의 포괄적 해결방도를 제시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한미당국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1만명의 추진위원과 10만명의 길잡이 조직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하여 7월 27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1만명 범국민대행진’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성사시켜 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운명 개척한다’는 노랫말처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현 시기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앞장서는 것만이 허세욱 열사 추모 1주기를 맞아 살아있는 우리들이 고인의 유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평통사 회원들은 올 1년 내내 허세욱 열사의 유지를 심장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 활동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자.

허세욱 열사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
한독운수 노동조합

서울 평통사 김슬기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지난 4월 6일(토) 오후, 봉천동 봉일시장 옆에 있는 한독운수 노동조합을 인터뷰를 하기위해 찾아갔습니다. 황규금 노조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마침 근처에서 식사중이시라 사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는 택시노동자 현황판이었습니다. 한독운수의 택시 번호가 일렬로 적혀있고 그 아래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진이 담긴 이름표가 하나하나 걸려 있는 현황판이었습니다. 한분 한분의 사진과 이름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한쪽에 걸린 허세욱 선생님의 이름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열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독운수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허세욱 선생님의 이름표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커피 배달 왔습니다.”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황규금 위원장님께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 두 잔을 들고 썬웃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갔습니다.

쫓허세욱 열사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감회는 어떠신지요?
(위원장 사무실 창문을 가리키시면서) 지금도 세욱 형님이 저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눈을 깜빡거리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거 같아요. 세욱 형님과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 같고...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1주기가 되어서 추모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형님이 가셨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네요.

쫓한독운수에서 허세욱 열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항상 남들 앞에 서 있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계시던 분이예요. 겸손하고 성실한 그런 분이셨죠. 집회가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쓰레기 치우고, 그렇게 마무리를 다하셨어요. 여기 봉천동에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푸드뱅크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연말행사도 함께 주최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욱 형님은 박봉을 쪼개서 지방 사업장의 집회에도 가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에도 찾아갔어요. 품으로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시면 유인물을 한 아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죠. 워낙 그렇게 다니시니까 교통비, 식대로 들어가는 돈을 사무장에게 청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욱 형님을 노조간부로 선임해서 노조활동비로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그나마 마음이 덜 아파요. 또 언젠가 형님이 당신은 늘 허름한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내게 “위원장님은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며 근처 할인매장에 가서 억지로 옷을 사주겠다고 하는 걸 겨우 뿌리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분이셨어요.

쫓허세욱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택시 노동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야말로 택시노동자의 삶을 잘 드러내는 거 같아요. 노사 단체협약을 앞두고 교섭위원끼리 어제 수련회를 했어요. 정말 이제는 대정부 투쟁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택시노동자야말로 전 사업을 통틀어서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해요. 12시간 맞고대 근무에도 생활임금이 안되고, 낙후된 차량 탓에 건강문제도 심각하고...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기사에게 넘겨버리고... 그래도 한독운수는 그나마 상황이 나아요. 전국의 1,780개 택시 사업장 중에 근로조건이 0.3% 상위 안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죠. 운수법도 완벽히 지켜서 세금도 서울시 택시사업장 중에서는 2등으로 많이 납니다. 여기는 사납금제도 없고, LPG주유도 회사에서 부담해요. 성실하게 근무하면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인데 지금 LPG 가격도 오르고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서 회사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잘해주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바닥을 치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택시회사는 회사나 노조나 바닥을 치고도 오히려 그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쫓히세웁 열사 기념관을 한독운수에 두게 된 사연을 듣고 싶어요.

지난 1984년 11월 30일에 “내 한 목숨 희생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신 박종만 열사 추모행사를 23년째 택시연맹이 기리는 것을 봤어요. 택시노동자로서의 마지막을 조직에서 영원히 기려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좀 더 넓고 좋은 장소로 해야 하나 여러 사정상 기념관을 건립하기 전에 이곳에 임시로 열기로 했어요.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회사에 부탁해서 사무실 한 칸을 무상임대 받았고 평통사,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한독운수가 함께 추모관 개관을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쫓앞으로 기념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념관을 항상 열어놓을 겁니다. 세웁 형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노조간부 중에 기념관 관리자를 두어서 공간을 방치시키지 않고 잘 살려놓을 예정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쫓위원장님과 노조 간부들이 서울 평통사 회원으로 함께 가입을 하시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주세요.

세웁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평통사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회원 가입을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어요. 세웁 형님 돌아가시고 형님의 뜻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노조 간부들 불러놓고 “세웁 형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독운수의 전 조합원이 나서야 하지만 간부들이 먼저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간부들과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조합원들도 점차적으로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쫓평통사를 어떻게 보세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다고 봐요. 얼마 전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1인 시위하다가 전경들에게 폭력적으로 들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개인이면서 개인이 아닌 대중을, 전체 민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노조활동 하느라 평통사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쫓마지막으로 서울 평통사 회원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택시노동자들은 소수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죠. 그래도 평통사 이야기를 듣고 뜻이 좋다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평통사가 어느 단체보다 희생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과 같은 헌신적인 자세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기필코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일조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독운수 입구에 걸린 ‘열사의 뜻 이어받아 평화통일 앞당기자!’는 커다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허세욱 열사가 맺어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 귀중한 씨앗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열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허세옥 열사의 삶을 쫓아서
-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옥 추모사업회(준) 소식 -

서울 평통사 사무국장 황윤미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민주노총 한독운수분회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 참여연대와 관악주민연대 회원, 우리들의 동지, 허세옥. 그 분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 새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해 6월 2일, 허세옥 열사의 49재 후, 장례대책위원회를 추모사업회(준)로 전환했습니다. 추모사업회(준)는 열사가 몸담았던 단체의 대표와 집행책임자로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민중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허세옥 열사의 삶을 평전으로 제작하기로 하여 송기억 작가께서 집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전은 2주기를 기념하여 출판할 예정입니다. 또 분신과 장례를 거치면서 모아진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할 예정이며 열사 묘소와 유적,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1주기 추모행사는 15일(화) 정오, 마석 모란공원의 열사 묘역에서 추모제를 했고,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한독운수에 허세옥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회(준)를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옥 정신계승사업회’(이하 ‘사업회’)로 전환했습니다.

사업회는 허세옥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아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 모아진 기금의 일부분으로 평전 제작과 1주기 행사, 기념관 개관 사업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 기금은 쓰지 않고 허세옥 열사의 뜻을 기리는 구체적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사업회의 일상적 운용비용과 사업비는 회원들이 내시는 회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서 사업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열사의 뜻을 기리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월 CMS 3,000원, 또는 일괄 10만원 납부로 추모위원을 하시겠다고 신청서를 내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통사로 모아진 부분은 당시 추모사업회(준) 운영위원장을 맡은 민주노동당으로 취합했는데 집행을 책임지지 못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모위원 가입서를 내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열사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였을지 생각해봅니다. 개인과 가족만의 이익과 안일을 쫓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때, 민중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참된 일인지를 외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열사께서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바랐던 세상... 효순이와 미선이의 넋이 슬프지 않고, 황새울을 빼앗기지 않고, 한미FTA 체결로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않으며, 주한미군이 없는 세상, 평등과 자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사업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평통사를 통해 작은 회열을 느낍니다.

인천 평통사 신현범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는 중·고교 동창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유 국장이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여름, 우연한 기회에 유 국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평통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야겠다.’는 작은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가입 권유를 하지 않은 유 국장에게 정말 섭섭합니다.(고마움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

작년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에 참가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언을 조직하면서 보수적인 교육과 언론의 문제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람 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많은 NGO가 있지만 평통사처럼 평화통일에 전념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평통사를 아는 분들이 격려를 해주실 때는 평통사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문규현 신부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하는 일은 무조건 동참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평통사를 통해 무지에서 깨어나고 주변을 변화시켜나가는데 작은 회열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평통사 활동의 가장 큰 의미는 ‘주한미군 없는 자주적인 세상, 인간다운 세상’에 후대가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약한 활동을 거창하게 피력한 것 같아 계면쩍습니다. 앞으로 당당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신현범 회원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글을 보내준 신현범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노릇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서울 평통사 남미영

4월 4일(금) 저녁, 서울 평통사 여성분회인 노릇들 모임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이라 회원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이 날은 빠진 회원이 많았다. 은아는 간절히 원한 둘째를 얼마 전 임신하고 몸이 힘들어서 못 왔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열 달을 힘들게 견뎠었는데 이번에는 수월하게 보내길 다들 바라고 있다. 윤희는 시조부 제사가 있어 못 온다고 연락을 했다. 딸 셋 키우랴, 남편 공장일 도우랴,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챙기랴, 안쓰러울 정도로 늘 바쁘다. 그래도 평통사 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회원이다. 정자도 회사 회식과 겹쳐서 못 왔다. 직장생활 하면서 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많이 힘들거워 보인다.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몇 번씩 모임을 쉬었는데 그 때마다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쓴 소리도 많이 했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정자에게 모임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 남희는 서울의료생협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의가 겹치는 바람에 나오질 못했다. 일이 너무 많아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평통사 후원회원 모집도 많이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참여한다. 남편인 신재훈 회원은 지난 서울 평통사 총회 때 모범회원으로 뽑힐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남희도 모임에 잘 나오고 열심히 활동해서 모범회원 상을 받는 날이 오길...참! 회정이기도 모범회원 상을 받았는데~

덕분에 4월 모임은 회정, 안나, 은영, 미영과 황윤미 사무국장이 함께한 조촐한 모임이었다. 안나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데려가서 모처럼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모임이 되었다.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지 의논했다. 노릇들은 매년 어린이날마다 금천구 어린이한마당에 참가해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도 행사 준비모임에 내가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내용을 참가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결정하고, 서울 평통사 사무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기장난감을 바꿔주면서 아이들에게 평화와 이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황윤미 사무국장이 쓰레기탄약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서 교양을 하였다. 노릇들 회원들은 직장생활에, 육아에, 가사노동에 학습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동안 학습의 중요함을 알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하려고 노력했다. 책이나 회지를 읽고 발제하는 방법도 잘 되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하다 보니 A4 한 쪽짜리 문건을 읽어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해서 작년부터 테마사랑방을 교양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회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임 때마다 황윤미 사무국장이 찾아 와서 교양을 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지난 모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학습하고, 이번에는 쓰레기 탄약과 관련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주한미군의 만행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갇아먹고 있는지에 대해 분개하였다.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향한 활동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모임은 어린이날 행사 준비로 4월 중에 한 번 더 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위원과 길잡이를 모집한 용지를 모아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모임 때마다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렇게 모임을 끝내고 정~말 오랜만에 뒤풀이를 했다. 안나는 치과 치료중이라 술을 못 마신다고 아쉬워하면서 “아이들 없이 맘 편하게 뒤풀이 하는 것이 얼마만이냐!”며 정말로 좋아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모임에 못 온 회원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그 자리에 없으면 모두가 다 도마 위에 올라가지요~)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노돗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서울 평통사 여성분회 ‘노돗돌’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돋움을 위한 돌이 되기를 희망하며, 어려움도 많고 이론과 실천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로 뛰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자!

부천 평통사 손종욱

사무실에서 평화협정실현 운동을 위한 추진위원과 길잡이를 모집하라고 한다. 평화협정 길잡이와 추진위원을 어디서 조직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어서 후원회원이기도 한 여동생과 형에게 제안하였다.

또 거래처는 작은 공장이라 누구에게 딱히 제안하기도 그렇고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친하게 지내는 한사람에게 시험적으로 길잡이용 선전물을 주며 길잡이를 제안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은 듯싶다. 더 이상 없는 것인가?

문득 10년이 훨씬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동아리 후배들 생각이 났다. 우선 부천에 사는 후배 2명과 당시 나와 가까이 지내던 후배 한명에게 전화를 했다.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지만 다행히도 날 잊어버리진 않은 듯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었다. 참 오랜만에 연락이 된 후배들이다. 반가움과 함께 부담감이 느껴진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10여년 넘게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선배랍시고 전화해서 만나자고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고민이 된다.

며칠이 지나고 약속은 취소되었다. 갑자기 바빠져서란 이유였지만 너무 오랜만의 연락과 만남이 그 후배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듯 싶다. ‘아~역시 안되는 것인가’하지만 내 주관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며칠이 지나 다시 후배에게 전화를 했다. 후배는 망설이다가 주말에 후배들과 함께 1박2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다. 당연 좋다고 대답했다. 약속은 잡았는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진다. 한 두 명도 아니고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내용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길잡이 제안을 한다는 것이 말이다. 그간 농땡이를 부렸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어찌겠는가... 부랴 부랴 사무장님께 참고로 읽을 만한 것들을 부탁하여 읽고 또 읽었다. 아마도 최근 들어 가장 집중해서 열심히 자료를 읽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깊이는 부족하였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되는 만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가서, 짐을 내리고 푸는 동안 후배들에게 말을 꺼냈다. 현 정세와 길잡이 제안...다행히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후배들은 흔쾌히 동의를 하고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다시 연락처를 들여다보았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 후배들이 꽤 되었지만 세 명의 후배들에게 연락이 닿았다. 한명은 군포에 살고 두 명은 안산에 산단다. 군포는 다음에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안산에 사는 후배들과 약속을 잡았다. 조합일을 하는 후배라 집회 때 여러 번 봤던 후배라 추진위원과 후원회원을 목표로 저녁 9시에 안산으로 향했다.

소주잔을 돌리며 노조 얘기, 집안 얘기, 아이들 얘기 등이 이어졌다. 한 후배가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하자고 한다.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줄 알고 있는 것이다. 정세부터 시작해서 평화협정 이야기가 이어졌다. 노동조합간부로 조합활동에 매진하는 후배였다. 후원회원까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된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고 후원회원을 해주기보단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하지만 추진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란 생각에 제안을 했는데 길잡이 10명조직과 7.27참가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조합친목회에서 길잡이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한다. 그것이 추진위원이라고 했는데도 뭔가 모를 부담을 갖고 있는지 자신들도 길잡이를 하겠다고. 기꺼이 추진위원비용을 냈지만 길잡이로 참여했다. 이 후배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4월에 다시 보자는 약속과 연락이 되지 않던 후배 녀석의 소식을 들으며 길을 나섰다. 새벽 늦은 시간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을까 안산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노동조합 상집 회의 때 기타 안건으로 길잡이 제안을 해서 간부들은 길잡이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작지만 불씨가 번지는 것인가? 무척이나 기뻐다.

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끊겼던 동기와 선배의 최근 근황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어디서 일하는지 확인된 사람은 114로 전화해서 근무하는 곳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좀 더 넓게 보고 있지 않았구나, 나 스스로 안될거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안될꺼야’ 하는 소극적인 생각은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기 귀찮아 편하게 생각하고, 가까이서 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내가 얼마나 관성적으로 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뛰어다니고 이 또한 나 자신과 투쟁하는 과정으로 여기며 길잡이, 추진위원을 조직해야겠다.

5월 동문 체육대회 때 나름의 선전물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하여 길잡이를 조직해야겠다. 그 전에 미흡한 나를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체결의 내용으로 채워야겠지만.....하하하

개성방문기-6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고향

안동 평통사 한철희

박연폭포로 가기 위해 가로지르는 개성 시내 풍경은 한마디로 충격에 가깝다. 우리가 배운 남측의 기준대로 말하면 오가는 차량은 고사하고 이렇다 할 건물 하나 눈에 들지 않는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이는 고층아파트단지라야 기껏 몇 층을 넘지 않으며 그것도 색이 바라 영락없이 쇠락해 보인다. 이곳저곳 그리고 도심 깊숙한 곳까지 올망졸망 어깨를 맞댄 수많은 주택들과 그리고 그 사이를 잘도 헤집고 다니는 실루엣 같은 골목길들이 아스라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어느 대로보다 결코 좁지 않은 개성의 주요 도로들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가 점령하고 있고, 양 옆 인도에는 질서 있게 제법 많은 복녜 인민들이 여유롭게 제 갈 길을 재촉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 켠 공터에서 저들만의 놀이에 빠진 아이들이 돌연 차를 쫓으며 싱그러운 웃음으로 손을 흔든다. 버스 안, 지난 과거를 회상하듯 관찰자가 되어 버린 우리 남측 관광객들도 문득 일제히 손을 들어 화답한다. “반갑습니다. 동포여!”

내가 탄 버스의 북측 안내원은 매우 정렬적인 남성이다. 말투는 북측의 전형적인 말씨로 그 억양이 유난히 드세고 힘이 넘쳐 보인다. 하지만 그 강단 있는 성격과 달리 매우 솔직한 편이다. 개성공단을 지날 때이다. “이곳 개성공단은 남측에서 자금과 시설을 투자하고 북측에서 인력과 설비를 제공하여 조성된 곳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힘의 상징이자 또 북남 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통일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북측 인민들은 많은 남측 기업이 이곳에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뭇 너무 진지해 잠시 차내 침묵이 흐를 정도였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이 북측 안내원의 남측 손님, 즉 우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다. 지난 시절 반목과 적대를 통해 굳어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조선”과 “북조선”이라는 용어보다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남측” “북측”. 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겨운 이름이던가!

남측의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개성 시는 정말 음산하고 쓸렁한 곳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움이 도처에 숨어 있다. 먼저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을 자세히 보자. 놀랍게도 얼굴이 모두 한결같이 곱고 만면에 여유가 묻어난다. 결코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한편 시내 거리는 매우 깨끗한 편이다. 대량 소비와 대량 폐기를 통해 지탱되는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도는 쓰레기가 없어서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지만 하여튼 거리는 너무나 청결했다. 또 동승한 북측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개성 시내 건물 배치의 어떤 특징도 읽어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상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음이니 당연히 건물배치와 안배도 이에 따랐다. 구역에 따라 각종 학교와 도서관, 인민학습당이 같은 생활권에 묶여있고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관련 관공서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보생활관이 형성되는 것이며 당연히 같은 구역에 사는 공동체 구성원끼리 결속력과 단결력 그리고 연대의식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것일 테다. 남측의 잣대로 들여다보아도 이 점은 우리가 과거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당일 개성관광 일정은 오전 북측 CIQ를 통과하여 5분여 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을 가로질러 곧바로 차량으로 박연폭포로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오후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일화가 서려있는 선죽교와 송양서원을 방문하고 이후 고려박물관 관람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연폭포는 송도삼절의 하나로 송양 받을 정도로 개성의 최고 명승지로 꼽힌다. 한편 박연폭포는 그 명성답게 들어선 자태가 매우 웅장하고 신비로워 멀리서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 옛날 박연폭포의 절경에 취한 황진이가 즉석에서 머릿단을 풀어 일필휘지로 글을 새겼다는 전설을 안은 통바위에서 박연폭포의 그 신화는 그 절경을 이룬다. 이어 관광은 박연폭포를 품은 송악산 관음사까지 약 1시간여의 산행을 겸한다. 관음사로 오르는 여정에 바위 곳곳에서 마주치는 북측의 선전구호는 언뜻 당혹감을 준다. 적어도 크기와 규모로 본다면 결코 금강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 일행 중 어느 한 분이 도저히 그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몇 번을 주저하다 안내원에게 질문하고 말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새겨놓은 것이요?” 다소 예기치 않은 당돌한 질문이기에 잠시 긴장했는데 북측 여성 안내원이 화사하게 웃으며 답한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우리 공화국의 대한 드높은 충성심이 읽혀지십니까? 그렇게 우리 공화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 보여주는 것입네다” 의외의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듣던 북에 대한 편견들, 이를 떼면 가난이거나 구굴 또는 비굴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결코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결코 호락호락한 국가는 절대 아니라는 매우 강한 인상만이 남겨진 셈이다.

사실 이번 개성 관광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어릴 적부터 듣던 아버지의 고향은 개풍군 이만리이다. 말씀에 따르면 지금의 개성공단 근처라고 한다. 3월 초순 어느 날이다. “아무래도 새 정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하다간 개성방문도 장담할 수 없으니 되도록 날을 좀 빨리 잡았으면 한다면...” 그렇게 해서 급기야 서두른 것이 지난 3월 26일이다. 좀 뭐하지만 이른바 60년 만에 고향 방문인 셈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날은 남북관계에서 매우 긴박했던 하루다. 먼저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예선 남북축구가 평양에서 상하이로 옮겨져 치러진 날이다. 또 이날 저녁은 전날 통일부장관의 북핵관련 발언이 빌미가 되어 개성공단 내 우리측 인사가 추방당한 날이기도 하다. 문득 이날 개성관광 내내 나와 오랜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 북측 안내원이 북측 CIQ에서 헤어질 때 악수하며 나눈 마지막 인사말이 뇌리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북과 남, 남과 북, 이제 민족으로 다시 만나야 함네다.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자주 만납시다” “그래요 또 만납시다.” 서로가 똑바로 시선을 맞추지도 그렇다고 피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볍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데 멀리 판문점 넘어 분단의 상징, 기성동과 대성동의 경충한 깃발들이 불쑥 눈에 들어온다. 태극기와 인공기. 아아, 그런데 누가 저 분단의 깃발들을 감히 내리지 못하게 하는가?

| 현장 |

주한미군 송유관 기름유출 - 우리의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대전충남 평통사 사무국장 장도정

바다도 땅도 온통 기름오염

우리는 보고, 느끼고, 알고 있다.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인간이 인간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행한 잔혹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치유되지 않았고 있는 지를...

이와 같은 기름오염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35년을 넘어 현재까지 우리가 받을 딛고 있는 땅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개천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기름오염의 주범 TKP(Trans Korea Pipeline-한국중단송유관)

TKP는 주한미군 송유관이라고도 불리며 1970년 주한미군에 의해 만들어진 송유관으로 포항에서 대구, 대전, 천안, 서울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연장 452km 이른다.

대구, 대전, 안양 등에서 TKP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송유관 관련 사고 19건 중 16건이 전국에 걸쳐있는 TKP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부식으로 인한 사고는 5건이다.

이미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 국방부가 1996년 미국의 튜보스코프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맡겨 TKP 전구간의 부식상태를 조사한 결과 송유관 두께의 20%이상 부식된 결함은 727곳에 이르렀고, 51~60%가 부식된 곳이 21곳. 61% 이상 부식된 곳도 9곳으로 밝혀졌다.

또한 TKP는 기름유출에 대해 대응하는 체계(누유시스템)가 없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땐 발견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며 유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1990년 7월 6일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세천미군저유소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대청호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킴.

*2000년 2월 18일 대구시 서구 비산7동 팔달교 밑 금호강 준치 지하4m 지점에 매설된 송유관 부식으로 항공유 8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기름오염은 진행형

2008년 2월 또다시 TKP에 의한 기름오염 문제가 세천미군저유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기름오염 문제는 세천미군저유소(이하 저유소)가 2005년 폐쇄되어 2006년 한국농촌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저유소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면적 37,200㎡의 9.6%인 3,570㎡가 오염(긴급방제가 필요한 수치 2.5배 초과)되었으며 지하수 또한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독성물질인 벤젠은 기준치 40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대전시, 동구청 등 관련기관들의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적으로 방치해 오다가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곳이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로부터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많은 곳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이다. 또한 저유소 내부뿐만 아니라 저유소 인근 외부 토양도 기름에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육안으로도 실개천(저유소를 거쳐서 대청호로 흘러감)으로 기름띠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KP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표상

미국은 전시주요물자인 유류를 안정적으로 전방까지 공급하기 위해 TKP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무역 및 재정 적자, 국방비 감소, 대외 안보정책 재조정 등의 상황과 TKP운영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측에 이양을 제안하였고, 1992년 ‘TKP 시설 이양 합의각서’를 체결 이를 국방부가 무상으로 인수하였다.

현재 TKP 대부분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왜관~대구비행장(28km) 구간과 인덕원~평택(78km)은 아직도 폐쇄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 쪽과 협의 없이 폐쇄는 불가능하다”, “인덕원~평택 구간이 폐쇄되지 않는 이유는 수원·오산에 위치한 미군 공군기지와 평택의 미군 헬기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유류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TKP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필요성을 상실한 기름피물만을 한국 측이 인수한 것이다. 미국은 TKP를 한국 국방부에 이양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찰시켰다.

TKP의 소유권이 한국 국방부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의 일부구간이라도 폐쇄될 경우 대체수단에 의해 주한미군 유류수송을 계속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군 쪽과의 협의 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하다. 또한 TKP 운영 또는 송유물량의 중단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 정부에 변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미국은 기름피물을 한국 측에 넘기면서 TKP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예전과 다름없이 TK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유지 및 보수비용과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치를 이유도 없어진 것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 대책기구 결성

지난 4월 2일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였으며 대책기구 결성에 공감하여 4월 17일 대책기구 결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방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와 정밀조사 실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기구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위협을 주범

공동대표 고영대

4월 11일부터 네브래스카에서 전략 사령부의 위협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우주의 무기화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 모임’과 ‘평화를 위한 네브래스카인들’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고영대 공동대표가 참가하였다. 이 글은 회의에서 고영대 대표가 발표한 연설문이다. - 편집자 주

- 부시 정권의 등장과 9·11을 거치면서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2001년 12월 31일에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의회에 제출한 부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을 비롯하여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5 개의 이른바 불량 국가를 핵 선제공격 대상 국가로 지목하였다. 특히 북한과 이라크를 다른 3 개국과 달리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chronical military concerns)’ 대상으로 경계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미 미국에 의해 점령당했으나, 이제 북한만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대상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더욱이 부시 정권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근거하여 북한과 이란바 또 하나의 악의 축, 이란을 주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하는 전략 핵전쟁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한반도는 미국의 핵무기가 겨냥하는 지구상의 가장 위태로운 지역으로 되었다.

- 이 핵전쟁 계획서가 바로 개념계획 8022로, 이는 태평양·유럽·북부·중부·남부 등 5개 전구를 단일 전구화하여 지구 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한 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글로벌 스트라이크1)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개념계획 8022는 2003년 11월에 완성되었으며, 2004년 6월에 전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전계획은 핀 포인트2) 공격, 지하 군사시설 파괴, 미사일 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북한 핵 시설, 핵무기 등을 장악, 탈취하기 위한 특수작전 전담부대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념계획 8022가 수립된 2003년 당시는 한반도가 한창 전쟁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로, 만약 전쟁이 발발했다면 전략사령부가 개념계획 8022에 의거해 대북 전쟁을 주도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부시 정권은 개념계획 8022의 수립과 함께 미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작전 계획도 강화하였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작전계획으로는 작전계획 5027

를 비롯해 5026, 5028, 5029, 5030 등이 수립되어 있다. 작전계획 5027은 1974년부터 수립되어 온 것이나 작전계획 5026과 5029는 개념계획 8022와 수립 시기와 작전 목표에서 맞물려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작전계획 5027 역시 핵무기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작전계획 5027-98부터 선제공격 전략을 도입하였으며, 작전계획 5027-04는 MD 구축, 작전계획 5027-06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담고 있다.

작전계획 5029의 경우, 개념계획 5029를 2003년 11월 개최된 제 25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2004년 12월 초안을 완성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채택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여 2005년 6월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기로 다시 합의했으며, 2008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내부 소요나 심지어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작전계획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 핵심 작전 목표는 북한 혼란이나 붕괴 시 북한의 핵 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을 남한이 아닌 미국 주도로 접수, 장악하려는 데 있다.

작전계획 5026도 2002년 12월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 7월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은 북한 내 핵·생화학 무기 시설과 지휘·통제 시설 등 700여 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작전계획 5026은 작전계획 5027과 5029, 나아가 개념계획 8022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2003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미 전략 사령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가 먼저 개념계획 8022와 작전계획 5026으로 대응하고 확전될 경우 작전계획 5027로 대응하거나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작전계획 5029로 사후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획기적으로 강화된 미 전략 사령부의 권한과 확장된 임무, 편제 부대로 보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 전략 사령부가 총지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 사령부의 임무는 핵과 재래식 전쟁, 우주, 글로벌 스트라이크, MD3), 사이버 전장, C4ISR4), Combating WMD5)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2년 10월 1일 이미 미 우주 사령부를 예하로 편제시켰으며, 이와 함께 공군 전투사령부와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 미 대서양 함대사령부 등을 구성부대로 두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수집된 각종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등의 정보도 미 전략 사령부로 전달된다.

따라서 개념계획 8022는 미 전략 사령부가 자체 전력과 전구 및 기능 전투사령부들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할 것이다. 작전계획 5027 등은 미 태평양 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자체 전력과 미 전략 사령부 등의 전투사령부로부터 이양받은 전력과 위임된 지휘·통제권 및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될 것이나 대북 전쟁이 핵과 미사일, 지하 군사시설,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한다는 점과 미 전략 사령부의 임무로 보아 미 전략 사령부의 총지휘와 지원 하에 수행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대서양 위원회(The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는 2007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서양 위원회의 주장은 당시 사태 전개에 비춰볼 때 타당성을 갖는다. 부시 정권이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2002년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또한 대북 봉쇄정책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을 주도하는 등 일련의 대북 정치·외교·군사적 강압을 가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체제 수호 차원에서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악의 축 규정에 대해서는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하였고,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조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응수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대해서는 북한을 질식시키기 위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한반도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하자 2003년 10월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음을 밝히고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된 원인이 선제 핵 공격 전략과 개념계획 8022 등 미국의 군사전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부시 정권이 한반도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발적인 대북 군사적 강압을 가할 수 있는 근거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 근거하는 한미동맹으로 한국은 정치, 군사, 경제, 통일 등 국가 모든 분야가 미국에 예속되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이 남한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군정권까지 제약하고 있으며, 군사전략과 무기체계까지도 미군에 예속되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가로 되고, 남한이 북한에 비해 현존 전력과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게 되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도발적 성격은 한층 노골화되었다. 1994년 6월에도 당시 클린턴 정권은 대북 핵전쟁을 기도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그 피해가 남한은 물론 일본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포기한 적이 있다.

- 한미동맹의 도발적 성격은 부시 정권의 출범으로 한층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피하고 있다. 침략적 한미동맹은 기존 한미동맹의 대북 공세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역외로 확장을 피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 역내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유효 사거리 내에 주둔하던 전방 배치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여 대북 선제공격의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MD 구축을 피하고 있다. 또한 개념계획 8022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지스 구축함이나 초정밀, 초강력 첨단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배치했거나 배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역외 작전을 위해서 한미 당국은 2006년 1월, 당시까지 금지되었던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작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협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대만 분쟁이나 중동, 나아가 세계 어느 지역의 분쟁에도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침략적 한미동맹은 한반도 역외에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남한군의 아·태, 중동,

세계 지역 분쟁 개입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한미동맹의 미명하에 이라크에 수천 명을 파견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구한미동맹에 비해 훨씬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성격은 미국의 패권 추구 명분인 자유민주주의 추구라는 한미동맹의 가치동맹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다.

- 침략적 한미동맹의 한반도 역외 작전 수행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수반하고 있다. 아태 지역 동맹은 미국을 매개로 한 쌍무동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일, 미호, 한미, 일호동맹이 중심이다. 미국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전구안보 협력 계획(Theater Security Cooperation Plan) 등을 매개 고리로 하여 쌍무적 동맹체를 아태 지역 군사동맹체로 발전시켜 가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11월 18일, 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남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세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으며,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GP)6 참여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도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 동맹체, 나아가 세계적 군사 동맹체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고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4월 18~19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단계로 한·미·일, 2단계로 대만·호주·뉴질랜드 등까지 참여하는 자국 주도의 이른바 범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의체 결성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아태 지역 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이나 나토군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림팩이나 전구 안보 협력 계획, 레드 플래그(알래스카/네바다) 등의 연합훈련은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이나 세계 군사동맹체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 동맹체 건설 시도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상륙을 가상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결성하여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7년 8월에 나토의 동방 진출에 대항하여 유라시아 중심 지역인 중국의 신장·위그르 지역과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주에서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의 아태 및 세계 동맹체 건설 시도는 동북아와 아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 냉전체제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적 대결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 미 전략 사령부의 개념계획 8022를 무력화하는 방안의 하나는 개념계획 8022가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시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55년 동안 만성적인 군사적 대결과 수차례의 국지전을 겪었으며,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군축을 단행하여 남북 서로가 공세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전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국군(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 대북 군사적 강압의 주범으로서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는 정전협정 60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6자회담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6자회담 2·13 베이징 합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이 동북아 안보협력에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6자회담에 참가하는 6개국은 군사비로 세계 군사비의 약 65%를 쓰고 있고, 한국,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핵 보유 국가이며, 중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온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안보협력을 피하거나 다자안보협력기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마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군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군축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4개국의 군비증강은 그 만큼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축 압력은 그 만큼 거세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군축 과제는 실현되어야 하고, 실현될 수 있는 과제다. 이에 이로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다자안보협력기구 구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실효성 있는 동북아 평화실현의 길이다.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와는 양립될 수 없는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을 저지시킴으로써 반드시 한반도 평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그 결과 이 곳 미 전략사령부와 개념계획 8022를 부분적이거나 불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

4월 15일(화)은 허세욱 열사가 떠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주기를 맞이하여,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준)는 추모집회와 기념관 개관 등 여러 행사를 하였습니다.

기념관 개관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6일(토) 오후 2시, 서울 평통사 서영석 공동대표님을 비롯해 서울 사무국과 윤영일, 신재훈 회원, 박정신 자원봉사자, 중앙 오미정 홍보팀장, 이유빈 홍보부장이 봉천동 봉일시장 옆 한독운수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보니 한독운수 사무실 한 칸을 기념관으로 마련했고, 내부의 짐을 정리하고 새 벽지까지 바른 상태였습니다. 이날 서울 평통사가 찾아가서 청소하겠다는 소식에 한독운수 노조 간부들이 전날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저 마무리 작업을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로 주변을 닦아내고, 기념관 안에 걸어놓을 사진액자용 나무판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독운수 사무실 처마 밑에 회원들과 노조간부들이 용기종기 모여앉아 나무판을 사포질하고, 땅콩을 직접 으깨서 그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허세욱 열사의 사진을 전시할 액자라는 생각에 다들 힘든 줄 몰랐습니다.

기념관 내부에 허세욱 열사의 사진들과 유품들을 전시하는 작업을 하느라 최문희 부장님이 열흘 가까이 애를 썼습니다. 기념관 개관식이 열린 15일, 추모제에 참가했던 분들이 기념관이 예쁘게 단장된 것을 보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15일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변연식, 서영석 대표님과 약 2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알립니다]

나영훈 회원이 스팀 청소기 두대를 평통사에 기증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홍미애 님, 김복희 님, 이정용 님, 이재정 님,
송민영 님, 임희호 님

부천

3월 회원의 날

3월 29일, 3월이 다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모였습니다.

2008년 회원의 날은 회원들만이 아니라, 후원회원과 그 주변사람들까지 함께 참석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도 상근자들이 아니라 분회에서 내용과 진행, 뒤풀이까지 맡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원의 날!

마이클무어 감독의 ‘블링포 콜롬바인’이라는 영화를 보기로 하고 뽕튀기, 차 등 간식거리를 준비하여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화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니 이게 웬걸~~~ 영화가 아닌 그림책이었던답니다. 영어로만 나오고 한글자막이 나오지 않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영화분회원들이 모여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바뀐 영화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회원들의 웅성거림...

2시간 가량 영화를 보고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영화분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뒤풀이 음식에 너무나 행복해 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원의 날은, 새롭게 가입한 이준훈 회원과 허진우 후원회원,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된 박석진 회원이 함께 하여 의미가 있었으며, 손종욱 회원이 짧은 시간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을 하며 느낀점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13 도당산 벚꽃 축제

작년에 이어 도당산 벚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울림이 노래공연을 했고, 평통사 홍보, 이어울림 성원 모집 광고도 함께 했습니다.

허세욱 열사 1주기 추모제와 날짜가 부득이하게 겹쳐 회원들이 나누어 참석했습니다.

[알립니다]

따뜻한 봄날에 태어난 회원들 - 축하해요

4/5 윤재명 4/21 이영아 4/23 이숙주 4/27 김민옥

유정엽 회원이 결혼한대요~~

4월 12일(토) 12시 서초 웨딩홀입니다.

인천

4월 평화사랑방

“교육 내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4월 2일(수) 늦은 7시, 새로 단장한 인천평통사 교육실에서 4월 평화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박석민 민주노총 전 대협실장을 강사로 모시고 ‘사례를 통해 본 한미동맹의 진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7시가 되기도 전에 김창수 회원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속속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전국순회투쟁을 마치고 며칠 전 올라와 얼굴이 수척해진 심자섭 회원,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잠깐 일을 중단하고 온 정동근 후원회원 등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회원들을 위해 강사님이 신문기사와 도표를 가지고 침략적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낱알이 밝혀주었습니다. 교육과 뒤풀이를 마친 회원들은 배운 데로 실천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내 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길잡이’ 서명용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김원식 회원의 “길잡이” 모집 이야기

“피켓을 목에 걸고 해야겠어”

3월 어느 날 늦은 시간 인천 평통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원식 회원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들뜬 목소리로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 들려서 평화협정 길잡이 서명용지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야. 사람들이 막 퇴근하는 중이어서 하마터면 허탕 칠 뻔 했어”라면서요. 그 전화통화가 있는지 일주일 만에 평화사랑방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 평통사 사무실로 들어서는 김원식 회원의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쑥 내밉니다. 길잡이 35명의 명단과 모금 35,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피켓하고 신문광고 복사해 갈 수 있어?” 4월 6일 안산에서 있을 화물연대 가족 체육대회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길잡이를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진위원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김원식 회원의 맹활약을 기대하세요.

이석기 회원의 길잡이 모집 이야기

“긴말 필요 없어, 핵심을 찔러야지”

길잡이 용지를 받아든 이석기 회원은 일단 꼼꼼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음...그렇군, 국방비를 줄여야 거기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고, 그 돈으로 민생복지를 이룰 수가 있겠군” 길잡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이석기 회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복지비가 줄어서 어린이집 재정이 어려워져서 큰일이에요”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에게 길잡이 서명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이런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려면 쓸데없는 군사비를 줄여야합니다”라는 이석기 회원의 말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흔쾌히 서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10명의 길잡이 명단과 모금을 건네며 이석기 회원은 말합니다. “긴말 필요 없어, 핵심을 찔러야지”

[알립니다]

회원 가입을 축하해요

오창근 님, 정현숙 님

경기남부

사무실 집들이

경기남부평통사는 3월 14일(금)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사회단체 인사들과 쌍용자동차와 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 평택농민회 신종원 회장님등 농민회원들과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평택청년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비정규센터, 평택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택 노동자 힘, 특히 사무실의 주인이신 통복 6리 마을 어른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중앙 홍근수 상임대표님의 격려사에 이어 각계각층의 축사와 사무실 현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천과 인천, 서울 평통사에서 개소식 음식준비 등을 거들어 주셨는데 식사도중 밥이 부족해 멀리 오산에서 오영미 목사님이 밥을 들고 오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인사드리고 조금의 민폐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평택안성지역 장기투쟁사업장과 연대투쟁

평택지역에는 4년째 장기농성중인 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젠텍 분회가 있고 안성지역에는 작년 10월에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여 파업중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MAT지회가 있습니다.

올 1월 경기남부 준비모임부터 이젠텍 분회 방문이 시작되어 3월 중순부터는 주 3회 있는 아침출근선전전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젠텍 주식회사는 김치냉장고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며 크게 사세를 넓혔으나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과 해고가 빈번하고 정규직노동자들도 12시간 맞교대에 휴일에도 강제근로를 강요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시키지 말라, 작업 장갑을 충분히 지급하라”는 소박한 요구에도 사장이 응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농성중입니다. 사측은 유령노조를 만들고 이젠텍 분회와는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노동조합이 승리하여 올 1월부터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8명이 구속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간부 4명이 해고되었는데, 해고사유 중에 “평택미군기지투쟁 참가”도 포함되어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MAT지회는 19명 전 조합원이 징계를 당하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회사로부터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농성중인 천막까지 강제 철거하였으며 대다수의 조합원을 고소고발하고 노사 대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30대 초반이 많으며 파업기간 중 품물과 율동을 배워 경기지역 집회 등에 출연섭외가 많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마술을 익힌(?) 조합원이 있는데 여러 행사에 자진 출연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투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오산지역의 장창원 대표님과 회원들이 운영하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와 오산지역 회원들은 4월 4일 금속노조 이젠텍 분회에 김치와 고구마 등 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경기남부 평통사는 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과 항상 연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대전충남

대전충남평통사가 되기 위하여

대전충남 평통사는 대전에 사무실이 있고, 대부분의 회원 분들이 대전에 계십니다. 그럼 충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충남 곳곳에 회원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대전충남 평통사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네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충남’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그 첫걸음으로 새홍성교회에서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정세와 전망 그리고 우리의 역할-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정세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작정 배낭과 포스터를 들고 홍성 인근지역을 여행(?)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에 포스터를 붙이고 지역 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이 잠겨있기도 하고 이사를 간 단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은 역시 세상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몇몇분들을 만나서 서로의 의견과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정세강연회에 홍성 분들과 보령에 계신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쳤고, 예산지역 분들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지역에서 정세강연회를 열자는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을 우리 모두가 손 맞잡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세천미군저유소 둘러보기와 평화산행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산행의 참맛, 삶은 계란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네요. 과연 오늘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함께 행사를하기로 한 대전실천연대와 전화로 의논을 했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한마디 말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8일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회원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리고 조그마한 실천을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세천미군저유소를 둘러보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우리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미군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평화산행은 산길이 가팔라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평화의 마음도 한가득 찼습니다. 부부동반으로 오신 분들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매달 평화산행이 진행되니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다음에 같이 가요.

전북

김형근 전북평통사 운영위원의 두 번째 재판

지난 28일(금)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형근 운영위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첫 번째 재판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평통사에서는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전북 평통사의 전병생, 유승기, 이세우 대표와 전북과 군산의 실무자 등이 참여하였고 전북지역과 전국각지의 통일운동단체 대표들과 실무자들이 약 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미처 복사하지 못해 미뤄진 피고 김형근 교사와 피고 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형근 교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제2회 남녘통일에국열사 추모제 참가, 통일교사모임 및 통일산악회 활동 등의 몇몇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 제작, 취득, 소지, 반포 및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김형근 교사는 A4 14장에 자필로 빼곡하게 쓴 모두 진술서를 통해 “기억에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저를 무슨 사상가로 아주 쉽게 몰아세웠으며, 어린 중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국가를 전북시킬 전위대를 배양할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었다. 교육부에서 인가한 통일 교육활동과 통일교사의 기초연구활동을 놓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쉽게 등치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또한 “승고한 교육적 행위를 낡은 법률적 잣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남북의 지도자들이 협약한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분단지향적이고, 독재유지를 위한 반민주악법에 입각한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범죄 행위로 모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 증거가 아직 충분치 못해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즉석에서 이루어진 집회(?)에서 배종렬 상임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죄를 추궁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모두의 관심 속에서 김형근 교사가 하루속히 무죄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김형근 교사의 차기 재판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

“군산 평통사 드디어 4월 26일 창립총회
개최예정”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은 오는 4월 26일(토) 오후 5시 참주거실천연대 사무실(군산시청 앞, 군산시 경장동 523-3)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모임 대표인 유승기 목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매주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회칙, 임원진 구성 및 회원조직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산 평통사의 창립은 전북 평통사 군산회원모임에서 지난 1여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독립된 지역평통사로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창립 이후 군산평통사는 전북 평통사와 완전히 분리하여 재정, 회의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전북 평통사와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향후 전주 평통사가 건설되면 전북지역에서 3개의 지역평통사가 서로 협력하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전북지역 평통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회원들은 물론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평화바람>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새 보금자리 마련해 개소식 가져”

지난 3월 15일 군산 평통사와 함께 군산미군기지사업을 벌여나갈 유랑단 <평화바람 (단장 : 문정현 신부)>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소장 : 오두회)>가 전북과 군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평화단체와 인사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공간은 군산미군기지와 가까운 옥서면 옥봉리 200여평의 땅에 지난 몇 달 동안 사무실과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마련한 것으로 군산기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날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 공동대표 유승기 목사님은 축사에서 “군산 평통사도 4월 창립을 통해 평화바람과 함께 군산에 평화의 바람이 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700(추진위원)-7000(길잡이)-200(회원) 조직을 위한 실질적 첫발을 떼다

3월 21일 나주, 24일 무안, 27일 해남, 28일 광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에 기초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배치 현황,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주한미군 기지 변화, 군사훈련 현황,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임에 참석하신 회원 분들은 “주한미군의 현황과 실태를 이렇게 세세하게 눈으로 보기는 처음이다. 심장이 끊는다”, “주한미군들의 상태와 평화협정의 내용을 잘 결합해서 교회나 공공장소에서도 편하게 틀 수 있도록 영상물을 만들어 달라”,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는데 미군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그 심각성을 알게됐다”는 등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무안 지역에서 광주 군 공항(제1 전투비행단)의 무안 이전 논의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배치, 한국군의 배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질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나주 모임의 최진연 선생님(나주사랑시민회 전 상임대표)은 “회원, 후원회원 20명을 조직하겠다”며 광주전남 평통사 나주모임의 활성화에 높은 결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주, 무안, 해남지역에서 4월 모임부터 우리 내부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 단체,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직해서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목포의 최창현 목사님은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5월초에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4월 7일(월)은 광주전남 평통사 3기 1차 운영위원회 집행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에서 평통사 상임대표로 되신 배종렬 대표님을 광주전남 평통사의 ‘명예 대표’로 추인하였고, 김용성 목사를 재정위원장에, 김현목사를 홍보위원장으로 추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정구 교수와 함께하는 평화카페를 힘차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700, 길잡이 7000 및 회원 150 조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광주지역 반미연대 집회 추진!!!

4월 19일(토) 한미정상회담 규탄을 시작으로 광주지역에서 매월 1회 자주통일운동 진영들의 단결된 반미연대 집회 추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평통사, 범민련, 실천연대, 진보연대 등 단체들은 “광주지역에 자주화 운동의 새로운 대중적 장을 마련하자”는 동의와 결의아래 매월 집회를 결의하였습니다.

[알립니다]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이인수 님, 최진연 님, 정중석 님, 윤용기 님, 마대중 님

주요일정

- 4월 19일(토) 광주지역 단체 반미연대 집회

- 4월 28일(월)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 등반
(영암 월출산)
- 5월 2일(금) 강정구 교수와 함께하는 평화카페(광주 YMCA)

| 사진이야기 |

미국가는 2MB-선물 보따리 터지겠다!

지난 15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한미 FTA 조속한 체결, PSI, MD참여, 파병 등 미국에 줄 선물보따리를 싸들고... 그야말로 원조(?) 퍼주기 동맹, 돈 동맹이라 할 만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잘라내야죠!!

“먼저 공격하는것”과 “선제공격”은 다른 의미...??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북한이 크게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태영 내정자는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선제공격”이란 단어는 결코 사용한 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국회 서기록에 김태영 내정자의 발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운동, 그 뜻을 올리다!"

3월 24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추진위원 615명의 명단과 함께 한겨레 신문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먼저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셨지요.^^

신문광고가 나던 날, 평화협정 선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협정이 실현된 한반도에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본 AWC 활동가들의 한국 방문

평통사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AWC 소속 평화활동가들이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이날 있었던 ‘한국 정부의 MD참여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후에, 무건리 훈련장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 평화활동가들은 일본 미군기지 확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미군기지 재편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였고, 앞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운동에 적극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투쟁속에 살아있는 허세욱 열사

어느덧 1년, 망국적 FTA 폐기하라는 열사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질책하는 추모행사를 하였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중앙

[대표/임원]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강정구 고영대 변연식 임종철 문홍주 김성운(2개월) 박용일(2개월) 이일영 장경옥 홍창의

[후원회비] 박춘원 서경숙 유영섭 이광수 이성호 이은혜 임동명 최문숙 최재영 하정일 한희숙 홍민애

[특별회비] 고영대 김창환 박희정 정순영

[후원금] 새길교회 이정용 푸른마을교회 해피빈모금 향린교회

서울 평통사

[회원회비] 고이지선 공동길 권병길 권혁문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성운 김순정 김슬기 김연옥 김은미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종현 김중한 김지수 김지영 김채석 김치섭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김후중(2개월) 나영훈 남미영 문석우 문성현 박석분 박정자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정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서영석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2개월) 유영재 유현규 윤영일 이경아 이경옥 이민형(2개월) 이병일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종남 이준호 이춘미 이현규 이현규 이현숙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인민지·김종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남희 장성식 장속도(2개월)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정혜열 조영희 조요환(2개월) 조창현 지안나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한문덕 한상옥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현동식(3개월) 황규금 황도연 황윤미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고은숙(2개월)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균열 김기환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상중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용순 김유중 김점희(2개월)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우석(1년)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안지성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 오혜경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병용 이상근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영옥 이윤 이은영 이인희 이정태 이창호 이해삼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정은선 정철호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선영 홍길표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용애 강혜선 곽노충 권혜숙 구현모 김덕근 김미영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숙희(2) 김인영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숙 노은하 문은정 박병준 박숙경 박영근 박옥선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배영미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손석환 손종옥 신장호 신정길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윤재윤 이경숙 이리나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준훈 이진혁 이현주 양난영 임숙영 임현순 임채경 장동환 장미숙 장인옥 장혜영 전윤미 정상희 정용진 정창옥 조미옥 조지선 주명숙 주정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최경순 최은주 최창수 최혜정 한

태희(2개월) 허호인 현지환 홍갑표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현낙철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태형 김강연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익
김오섭 김은영 김인식 김일희 김정녀 김주숙 김중찬 김중찬 김창수 김호영 김희겸 남익현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선 서재훈 서화조 손선재 송재철 신동훈 신창균 신필녀 신현범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수정 오현곤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일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정송호 정유성 정재훈 정형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지정희
진재환 차광호 최문석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미현 한연숙 홍종
[후원회비] 고대권 김금옥 김대인 김도식 김동운 김명숙 김명중 김상기 김지영 김정대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박기현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백은정 서덕용 소병옥 송경평 송한석
신정순 심이섭 안용원 오석근 오종춘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한성 유한진 이거종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영미 최 웅
최원식 하태준 허문예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강상원 김승만 문종식 민영완 박종양 변혜숙 이수용
이우곤 이유빈 이은우 이종필 장창원 정만진 한은숙 현호현 홍성조 황재순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고종광 권선필 권선헌 권인 권혁선 김
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성자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중훈 김지수 김홍엽 김홍수 남영혜 류
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도신 박범창 박석진 박영칠 서영완 소종영 손정희 송관옥 송신근 송
원준 송인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
장환 윤상렬 윤영덕 이경아 이기홍 이번영 이영석 이요한 이용구 이종명 이진규 이창복 이
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도정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성삼 정순희 정창원 정태순 정
하진 정한섭 조봉현 조부활 조성균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한동화 한재훈 함
필주 허민정

전북평통사/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권선휘 김경수 김대송 김도걸 김동옥 김동학 김명근 김미라

김미주 김미경 김보현 김 삼 김성훈 김순희 김아영 김양균 김연태 김유순 김인수 김종혁
김준근 김진호 김판태 김형근 김효성 노승민 라귀인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종문
박용호 박충례 박영천 박종대 박은경 박노엽 방용승 배철환 서동환 서정대 서현선 선진숙
송상구 송화선 신수철 신용우 신현옥 안경숙 양지연 양종진 양정순 양재석 오기주 오인빈
오창규 우훈식 유승기 유은선 유재임 유희탁 이경진 이규태 이명자 이병기 이병식 이병주
이상호 이세우 이수정 이성교 이용숙 이은화 이장우 이정현 이재홍 이중구 이진규 이창구
이창근 임재완 장수나 장완수 전해숙 정창완 전재현 전병생 전호일 전호정 정용용 정운승
정은주 조광범 조성옥 조성숙 조수미 조영애 조판철 채운석 최기봉 최대준 최명호 최민옥
최선옥 최성훈 최성웅 최수경 최영목 최응진 최인자 최희숙 추현주 허자영 허정길 현주억
홍경갑 황남인 황영하 황인철 황현정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흥문 김경태 김광훈 김덕현 김명훈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수미 김영식 김영일 김용성 김인숙 김 현 김희용 노준복 모영현 박석면 박석중 박석환
박선재 박승규 박승옥 박영배 박종찬 서창호 안희만 유진이 윤종순 이광철 이대준 이돈기
김순중 이성원 이윤옥 이인수 이재원 이재창 이철우 이태석 이현수 이희수 장관철 전영남
정길주 정동석 정유철 정일태 정종득 정중석 정찬록 정희억 주근호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한강희 홍용식 무진교회 민들레교회 무등교회 큰사랑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현택 김창환 권정애 이규중 박용제 김지섭 장호철 김금희
유춘우 정철환 김정희 우성섭 김현숙 배용한 강석주 김윤상 피재현 김영애 한철희 김주철
박종규 김정석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CMS회원만)

고경수 김남경(2개월) 박성민 박순중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부산경남 지역회원

김건우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배종렬 신정길 임승계 조현정 홍근수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성경혜 이선엽 이
범준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 독자마당 |

* 문제의 정답을 위의 칸에서 지워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답을 다 지웠을 때, 남은 글자가 정답입니다.

1.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잡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한국전쟁이 끝나고 체결되어야 할 이것이 60년동안 미뤄져 왔지요. “주한미군 내보내는 0000 실현”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3. 평통사는 2번 운동에서 “7월 27일까지 10만명의 000를 찾자”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4. 올해 평통사 총회에서는 문규현, 홍근수, 000 상임대표님을 선출하였습니다.
5. “우주에서 총알로 총알을 쏘아 맞춘다” 새로운 냉전기 불러올 부시의 이 구상은 무엇일까요? MD를 한국말로 하면 000 00.
6. 최근 주한미군은 이 돈으로 8,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000억원의 이
자수익을 내고도 12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군 퍼주기 인 000 000 협정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협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7.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의 대추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효순이 미선이를 죽게 만
든 미군 장갑차가 훈련하는 000 훈련장이 확장되면서, 여기 주민들도 “미군에게 고향을 빼
앗길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8. 4월 9일, 투표하셨나요? 이날은 어떤 날? 두 글자.
9.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말은 그럴 듯한데 미국이 바다위에서 벌이는 해적질
과 다름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영어 약자를 소리 나는 데로 읽으세요.
10. 드디어 창립합니다.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4월 26일 창립을 앞둔 00 000.
전북지역에 있고요. 미 공군기지가 새만금을 끼고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 인천 김보희 회원

유영재 정책실장이 쓴 평화협정 관련 내용이 아주 좋았다. 추진위원으로 가입시킬 아줌마들
에게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도 몇권 챙겼다.

? 안동 한철희 회원

좋았던 기사는 <사진이야기>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말과 글만이 아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압축된 한 장의 사진이 가장 강렬할 수 있다. 더군다나 평통사의 지난한

투쟁과 현장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진들이 최상이라고 본다. 가장 유익했던 기사 평협운동 제안 글.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올 해만큼 남북이 맞은 중요한 시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 그 시의적절성과 또 당면한 평협의 주요투쟁 방향들이 매우 유익했다, 심자섭 회원 인터뷰도 좋았다. 경험컨대 생각과 방식이 다른 타인을 합리와 논리로 설득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가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회원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감동받은 기사다. 그 외 각 지역평통사간의 회원소개란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편집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 서울 남미영 회원

가장 좋았던 기사는 이정용 기자 인터뷰. 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여서 관심이 가기도 했고 정작 내용을 읽고 나니 책 peace boat의 인세를 모두 평통사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만큼 “평통사의 활동이 평화운동단체로 인정받고 대중화되어 가고 있구나”하는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심자섭 회원 인터뷰나 장해영 회원 글은 재미있다고 보다는 편하게 읽으면서... 평화협정운동에 대한 회원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어려움, 보람들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 힘도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를 결의하게 만들었다.

? 변연식 공동대표

[회원마당]의 최문희 회원의 글이 진솔하고 꾸밈없는 느낌, 뒷부분에 허세옥 열사를 가슴깊이 간직한 모습이 짝했다. 장해영 글도 진솔하게 잘 썼다. 노력이 보였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든다. 편집후기가 참 좋다. 이런 유형의 글이 더 있으면 좋겠다. 다른 페이지도 편집후기처럼 여백의 미를 더 살렸으면 좋겠다.